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시간성의 선적 이미지를 가진
기물 제작 연구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김 상 훈

시간성의 선적 이미지를 가진 기물 제작 연구

지도교수 민 복 기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김 상 훈

김상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위원장 황 갑 순 (인)

부위원장 한 정 용 (인)

위 원 민 복 기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판금작업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라는 것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시간을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영원(永遠)의 시간, 흐르는 시간, 찰나(刹那)의 시간으로 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연구는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세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드러내는, 오래된 바위나 나무 같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자연은 영원과 순간, 불변 혹은 변화와 관련되는 시간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판금기법을 사용하는 기물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시간과 자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 시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작품의 감성적 연관관계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수의 ‘선적 이미지’는 문학작품을 통해 그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시간의 세 가지 분류에 따른 자연물의 감성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영원에 가까운 시간 크기를 가진 자연물로 깎인 절벽, 마모되어 부드러워진 돌, 울창하게 우거진 숲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자연물들은 서사적 성격을 지니며 인내심, 고독, 외로움, 시련, 경외 같은 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둘째,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물로 바람이 만들어 낸 모래사장의 모래의 결, 계속해서 출렁이는 물의 표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관성을 가진 지속성과 반복성을 지닌 자연물로, 일상의 감정을 자아내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찰나의 시간 속성을 가진 자연물로 안개비가 흩날려 내리는 순간과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반짝이는 햇살

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찰나의 이미지는 눈으로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순간의 감정으로만 기억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자연물의 선적이미지를 기물에 나타냄으로써 이와 같은 감성적 측면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주요어 : 시간, 영원, 찰나, 흐르는 시간, 자연물, 선적 이미지
학 번 : 2012-23404

목 차

국문초록	i
도판목록	v
작품목록	v
시 목록	vi
I. 들어가는 말	1
II.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	3
1. 시간의 속성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와의 관계	3
1.1. 시간의 속성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	3
1.2. 영원(永遠)의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5
1.3. 흐르는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6
1.4. 찰나(刹那)의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7
2. 시간의 세 가지 분류에 따른 감정	9
III . 작품연구	15
1. 긴 시간적 속성을 가진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17
작품 1. 깎인 절벽	18
작품 2. 부드러워진 돌	23
작품 3. 울창한 숲	27
2.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30
작품 4. 모래사장의 모래	30
작품 5. 흐르는 물줄기	34
3. 찰나의 시간적 속성을 가진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39
작품 6. 흩날리는 안개비	39
작품 7. 반짝이는 햇살	42

IV. 결론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

도 판 목 록

[도판 1]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4
[도판 2]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의 햇살	4
[도판 3] 나무의 나이트	8
[도판 4]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바람의 빗 (Wind comb), 1977, 철	10
[도판 5] Tom Friedman: Untitled, 1997 Marker on paper 30 x 32 inches	12
[도판 6] 생 라자르 역 뒤에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 Bresson), 파리, 1932	14
[도판 7] 풍화작용으로 인해 깎인 절벽	18
[도판 8] 물살과 자갈 등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요선암의 돌개구멍	23
[도판 9] 울창한 숲	27
[도판 10] 파도나 바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래사장의 결	30
[도판 11] 흐르는 물줄기	34
[도판 12] 흩날리는 안개비	39
[도판 13] 반짝이는 햇살	42

작 품 목 록

[작품 1] Memoir_crash, 240x230x240(mm), tombac, 2016	21
[작품 2] Memoir_rounds, 145x150x150(mm), copper, 2012	25
[작품 3] Memoir_rounds_2, 430x300x60, copper, 2013	29
[작품 4] Memoir_whoosh, 450x450x70(mm), copper, tombac 2012	33
[작품 5] Memoir_drips, 110x110x235(mm), brass, 2015	37

[작품 6] Memoir_drops, 130x130x230(mm), fine silver, 2016 41

[작품 7] Memoir_glimmers, 180x210x220(mm), silver 998, 2016 44

시 목 록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이강산	15
<영원(永遠)>, 문태준	17
<바위>, 유치환	19
<물의 혀>, 나석중	24
<겨울산은 푸른 상처를 지니고 산다>, 정세기	27
<모래사장에 남는 물결무늬처럼>, 허만하	31
<물빛>, 마중기	35
<비오는 날에 당신의 그리움은 안녕하십니까?>, 정세일	40
<아침햇살>, 정연복	43

I. 들어가는 말

금속공예 작업, 특히 판금 작업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이다. 긴 시간의 노고를 들인 결과물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작품에 들인 시간은 작품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시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된 바위나 나무 같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자연은 영원과 순간, 불변 혹은 변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판금 기법을 사용한 기물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시간과 자연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 또는 자연물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시간과 자연의 개념은 시간의 방향성과 적층성, 그리고 자연의 선 이미지로 구성되는 시간의 흐름을 살펴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물의 '선적 이미지'를 시간의 가시적인 흔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시간은 과학, 철학, 종교,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설명하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간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먼저, 물리적 시간은 물리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 사용되는 시간이다. 물리적 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는 뉴턴의 절대 시간 이론과¹⁾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 등이 있다. 물리적 시간은 정확한 물리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 사용된다. 물리적

1) 뉴턴에 따르면 모든 행성과 위성, 그리고 다른 모든 천체들은 보편적 시간을 바탕으로 운동한다.

시간의 단위 1초는 시각과 시각 사이의 일정한 간격이다. 반면에 심리적 시간은 물리적 구분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리적 시간은 개인의 생리적인 조건이나 경험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생리적, 심리적 시간은 주관성이 강한 개인적인 시간이다.²⁾

심리적 시간을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한 극단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의 시간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느껴지는 찰나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 같은 시간의 심리적 분류는 시간이 흐른다는 기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시간을 영원의 시간, 찰나의 시간, 흐르는 시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물에 그 흔적이 남는다면, 그 흔적의 조형적 특성은 무엇일까. 흐르는 시간의 증거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자연의 조형 요소는 ‘선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예로 오래되어 깎인 절벽의 꺾여 들어가고 나오는 면의 모서리나 바람과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의 곁들, 그리고 강물이 넘실거리며 만들어내는 물의 고저(高低)등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연물의 예시 가운데에서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이 자연의 선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관계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자연 이미지를 영원의 시간, 찰나의 시간, 흐르는 시간이라는 세 분류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시간이 만든 자연의 선적 이미지가 보여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를 참조하고자 한다. 시간성을 표현한 ‘영원’, ‘찰나’, 그리고 작업의 모티브가 된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시들을 선별하여 작품의 시간성, 선적 이미지와 연결하고자 한다.

2) 두산백과, 「시간(time , 時間)」, <http://www.doopedia.co.kr>, 2016.07.08.

Ⅱ.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

1.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선적이미지와의 관계

1.1. 시간의 속성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방향성을 가진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라고 표현한다. 무수한 시간의 점들이 모여 방향성을 가진 선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선으로 연결된 시간은 직선일 수도, 자유곡선의 형태일 수도 있으나, 적층의 구조로 쌓이는 혹은 나아가는 것으로 인지된다.

시간은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쌓인다. 그 증거가 자연물에 남은 선의 이미지이다.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자연물에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적 소재들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흐르고 있는 시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적 이미지는 무언가 쌓여있다는 적층성, 어떤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연속성, 순간적으로 끊어진 단절성 등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적층성, 연속성, 단절성의 성격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리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며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형성된 것이다.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절리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³⁾ 후에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치며 굵고 선명한 틈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한 선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띤다.

3) 네이버 지식백과, 「주상 절리(柱狀節理)」, 2016.08.10.



[도판 1]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도판2] 나무의 나이테, [도판10] 사막 모래의 결, [도판11] 굽이쳐 흐르는 물 또한 시간의 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쌓이고 겹친다.



[도판 2] 나무의 나이테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형성된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선적 이미지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원인과 결과이다. 시간은 흐르며 방향성이 있고, 그것이 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선들이 모여 3차원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흐르는 시간이 원인으로, 그리고 자연의 선적 이미지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작품에 표현하는 것이 연구의 전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1.2. 영원(永遠)의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영원은 철학적으로는 보편진리같이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신(神)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⁴⁾ 또한, '무상(無常)'의 상대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회귀(永遠回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등이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의미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가령 니체의 '영겁회귀'에서의 영원한 것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자신을 한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원은 항상성(恒常性)을 뜻한다. 또한 영원을 말할 때 흔히 인용되는 수학이나 도덕률 등의 '영원한 진리'에서의 영원은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⁵⁾

영원의 시간은 양면적이다. 지속되는 정지의 순간일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일 수도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⁶⁾ 따라서 영원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물의 양상이다. 그러나 너무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바뀌어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없는 것도 영원으로

4) 국립국어원, 「영원(eternity, 永遠)」 <http://www.korean.go.kr>, 2016.07.08.

5) 두산백과, 「영원(eternity, 永遠)」, <http://www.doopedia.co.kr>, 2016.07.08.

6) 네이버 국어사전,, 「영원(eternity, 永遠)」, <http://krdic.naver.com>, 2016.07.08.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도판1] 주상절리와 같은 자연물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자연물에서 영원의 시간이 만들어낸 선적 이미지를 찾아본다면 깎인 절벽, 마모되어 부드러워진 돌, 울창한 숲의 나무를 예로 들 수 있다. 깎인 절벽은 오랜 시간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특히 바위의 파단면을 따라 형성되는 절벽의 거친 외형으로부터 강인한 선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마모되어 부드러워진 돌도 오랜 시간 돌과 돌의 부딪힘, 또는 물과 돌의 부딪힘으로 인해 표면이 깎이고 매끄러워진다. 따라서 부드러워진 돌의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이며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다. 울창한 숲은 사계절의 주기를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자연물이다. 숲의 무성함은 이 무한 반복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3. 흐르는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시간이 흐른다.’는 표현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순간들의 연속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시간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듯 시간은 방향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흐름의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서사적인 변화를 보고 느낀다. 영원 혹은 순간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포함하는 큰 틀 안에서 시간을 본다면, 시간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인생이 흘러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는 것처럼, 자연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며 외형의 변화를 거친다. 시간의 흐름이 쌓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은 방향성뿐만 아니라 적층(積層)의 개념 또한 가진다. 이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행하여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로의 이동은 불가능하

다.

흐르는 시간은 앞에서 말한 영원의 시간과 밑에 서술될 찰나의 시간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찰나가 모여 ‘흐르고’, 그 흐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서 ‘흐르는 시간’이 만들어 낸 시간적 이미지를 찾아본다면 모래의 결이나 흐르는 물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래사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래의 결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반복되는 자연의 선적 이미지이다. 흐르는 물줄기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두 예시는 정지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1.4. 찰나(刹那)의 시간과 관련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

찰나는 인도 말 크사나(ksana)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쓰던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며, 불교 또는 범어(梵語)⁷⁾에 연원을 두고 있다. 크사나는 극히 짧은 시간의 단위인데, 힘이 무척 센 남자가 손가락을 탁하고 한 번 튕기는 사이에 65찰나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 번의 탄지(彈指: 손가락을 튕기는 것)의 65분의 1을 한 찰나라고 한다. 또한,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이라는 불경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두 사람의 남자가 마주 보며 5,000가닥의 명주실의 양쪽 끝을 잡아당기고, 제3의 남자가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그 실을 자를 때, 한 가닥의 명주실이 잘리는 동안

7) 인도 아리안어 계통으로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원형 용어사전, 「범어(梵語)」, 2016.09.10.

64 찰나의 시간이 흐른다.'

즉, 가는 명주실 한 올을 양쪽에서 팽팽히 당긴 채 칼로 명주실을 끊을 때 걸리는 시간 이 64찰나라는 것이다. 찰나가 얼마나 짧은 순간의 비유인지 잘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1찰나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생겨나면서 무한(無限)의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또 찰나의 순간에도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찰나무상(刹那無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찰나는 거의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⁸⁾



[도판 3] 찰나의 속성을 보여주는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찰나의 속성을 보여주는 [도판3]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빛의 순간적인 이미지이다. 햇살은 공기를 타고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빛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순간순간 그 형상이 변화하는 아주 짧은 시간의 자연현상으로서 찰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8) 두산백과, 「찰나(刹那)」, <http://www.doopedia.co.kr>, 2016.10.08.

흘날리는 안개비도 아주 짧은 순간의 자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짧은 사선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내리며 찰나의 이미지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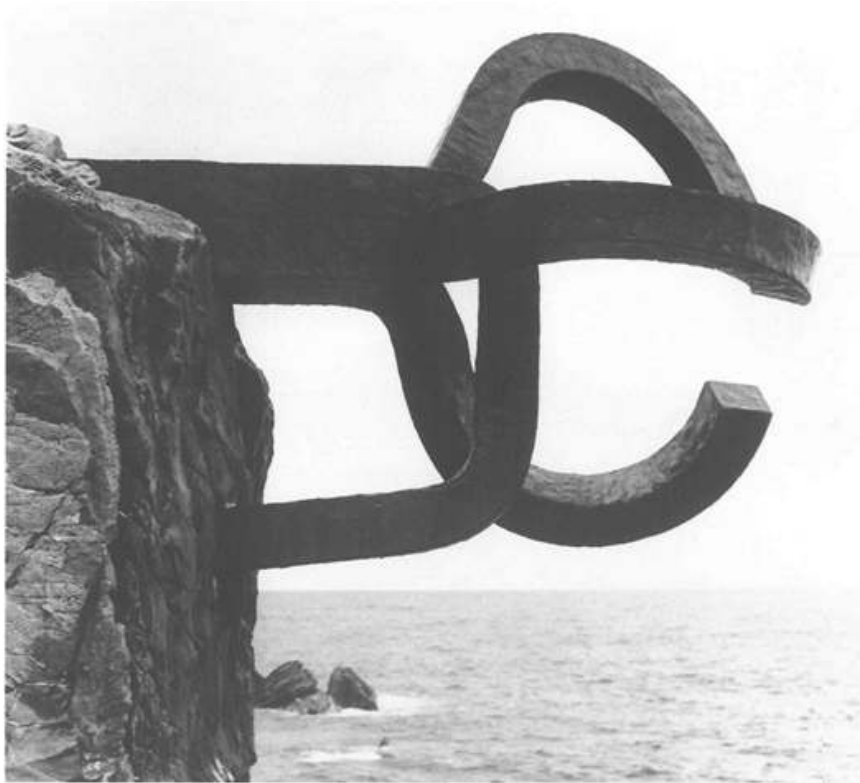
2. 시간의 세 가지 분류에 따른 감정

찰나와 같은 순간의 인상적인 장면이나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오랜 시간을 존재해 온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길이에 따라 구분되는 시간을 지나간 세월의 서사적 시간성,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흐르는 시간성,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성으로 분류해 보았다. 다음으로 각각의 자연 이미지가 주는 감정을 살펴보고, 다른 작가들은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긴 시간적 속성, 즉 영원에 가까운 시간적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자연물들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자리에서 세월의 풍파를 홀로 맞으며 견뎌낸 자연물들은 서사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관찰자로 하여금 인내심, 고독, 외로움, 시련, 경외심과 같은 정적이고 묵직한 감정들을 떠올리게 한다.

에두아르도 칠리아(Eduardo Chillia)⁹⁾는 이러한 이미지와 감성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주로 ‘시간과 삶’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으며, 대표적인 예로 바위 틈새에서 자라나는 철을 묘사한 <바람의 빗(Wind comb)>을 제작하였다.

9) (1924~2002), 스페인의 조각가로 처음에는 건축가로 뜻을 두었으나 도중에 조각으로 전향하였다. 스페인 전통적인 단철 기법에 의한 추상 조각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미술대사전, 1988, 한국사전연구소).



[도판 4]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바람의 빗 (Wind comb), 1977, 철

[도판 4]의 <바람의 빗>에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바위처럼 해안 절벽의 철 구조물은 하나의 자연물로 바위와 공존한다. 바람과 파도의 여파로 절벽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마치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철 기둥이 바위틈에서 피어난다. <바람의 빗>에서 세월은 단단하고 견고한 ‘철’이라는 물질로 재탄생한다. 작가는 “나는 삶을 베낀다. 그러나 삶의 외양을 베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로질러 진화해가는 삶의 행보와 단계를 베낀다. 사물들은 변화하고 진화한다. 나는 작품 속에서 이 진화를 베낀다.”¹⁰⁾라고 말한다. 작가의 말처럼 삶을 베끼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난과 역경, 시련을 견뎌낸 경험의 시간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관찰자는 [도판

10) 미셸 루트번스타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7,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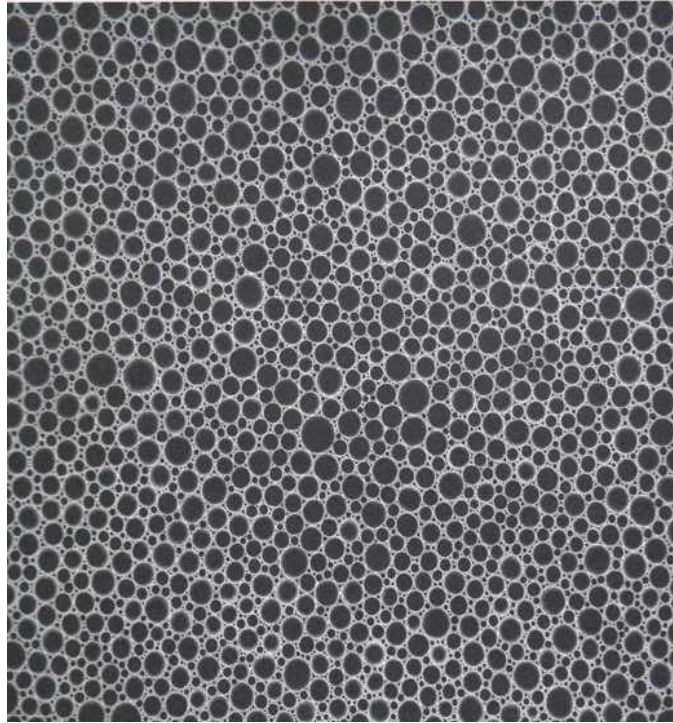
4)의 <바람의 빛>에서 강인함, 인내, 경외감 등의 감정을 전달한다.

둘째,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물들은, 들어오고 나감을 반복하는 해안가의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아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힘을 지닌다. 이러한 지속과 반복의 속성이 흡입력을 만드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탐 프리드만(Tom Friedman)¹¹⁾은 재료의 반복을 통해 흡입력 있는 작품을 만든다. 그는 일상의 흔한 재료를 통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흐르는 시간이 가지는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¹²⁾

11) 탐 프리드만은 미국 작가로 1988년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교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했고, 1990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조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리드만은 이쑤시개, 각설탕, 컵, 마스킹테이프 같은 일상의 물건을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배열한 개념적인 조각을 만들어 물질의 존재 방식과 창작행위, 일상생활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사유를 한다. 최근에는 정보의 구조와 과도하게 제공되는 정보가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

12) LUHRING AUGUSTINE :

<http://www.luhringaugustine.com/artists/tom-friedman/bio>, 2016.09.10.



[도판 5] Tom Friedman: Untitled, 1997, Marker on paper,
30 x 32 inches

젓가락, 비누, 껌, 휴지, 털실, 마스킹테이프, 플라스틱 컵 등의 다양한 일상적 재료를 사용하는 프리드만은 일상의 권태로울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유머가 가미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 [도판 5] 셀 수 없이 많은 마카(marker)의 흔적을 반복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마카의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것에 착안해 종이 위에 무수한 마카의 번짐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반복이 지속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의외의 상황은 부분과 전체가 서로 양가적인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유머러스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결과물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반복적인 일상의 활동을 결코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은, 즐거움과 유머러스함을 자아내는 것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찰나의 순간은 눈으로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린다. 그 순간의 이미지를 기억으로만 회상할 수 있다. 관찰자에게 찰나의 순간은 환희, 순간의 유희, 일탈의 감정을 가지게 하지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즉, 아쉬움의 감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찰나의 순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작품으로 [도판 6]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¹³⁾의 <생 라자르 역 뒤에서>를 예로 들 수 있다. 브레송은 “나는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¹⁴⁾라고 말한다.

13) (1908~2004), 프랑스의 사진작가로, 노르망디에서 출생하였다. 작품집에 『The Decisive Moment』 (1952, 결정적 순간, 프랑스어 판으로는 Images a la saurette)라 명명한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사진은 1초에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순간에 대상의 의미와 그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필름의 엄밀한 구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다 (미술대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소).

14) 지식채널 e 동영상, 「한 남자의 결정적 순간」,
http://blog.naver.com/photopia_lab/50636246,
2016.08.13.



[도판 6] 생 라자르 역 뒤에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 Bresson), 파리, 1932

사진은 흔히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 장르로 인식된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은 어떠한 감성으로 전달되는 것일까. 브레송의 사진 속 장면은 75분의 1초(약 0.013초)의 찰나의 순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즐거움, 환희의 감정이 전해진다. 이제 곧 물에 빠질 것이 확실한 피사체는 벽 포스터의 발레리나처럼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Ⅲ. 작품 연구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이강산

증산역에서 정선선 비둘기호 타고
돌아돌아 구절리 갑니다
눈꽃 환하고
소나무 푸르른

정선역 여량역 오를 때마다
깜박, 길 잃은 사람처럼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10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미처 흐르지 못한 냇물과
사람들만
유리창의 풍경처럼 실려갑니다.

산비탈의 폐광천 사택이며
냇물 위 외나무다리며
산 깊을수록
쓸쓸함도 깊어가면서

문득,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이란
살얼음 냇물 위로
누군가의 삶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진
외나무다리 같은 것,
끄덕이며 갑니다.

위 시에 등장하는 눈꽃, 소나무, 냇물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들은 추억을 되새기게 하거나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된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변하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자연물을 보며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처럼, 우리는 자연물을 보며 주관적인 해석을 하거나 무언가를 추억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한다. 즉, 자연물들은 감정을 느끼고 추억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특히나 자연의 '선적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선적 이미지의 연구를 통해, 앞에서 분류한 영원, 흐르는 시간, 찰나라는 '시간적 속성'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작품은 시간의 세 가지 분류를 바탕으로 구분했으며, 각각의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을 모티브로 삼았다. 또한 작품의 모티브가 된 자연의 선적 이미지와 거기에 실린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인들의 시를 덧붙였다. 시간의 흐름이 만든 자연의 선적 이미지의 분류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원의 시간성을 가진 자연물로 오랜 시간 풍파를 겪어 깎인 절벽,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마모되어 부드러운 돌,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다. 이러한 자연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하여금 인내심, 고독, 외로움, 시련, 경외와 같은 정적이고 무거운 감정들을 전달한다.

둘째로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물로 파도나 바람이 만들어 낸 모래의 결, 계속해서 출렁이는 물의 표면들이 있다.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의 이미지들은 지속과 반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일상의 감정을 가지지만 관찰자로 하여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흡인력을 지닌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 자체가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찰나의 시간 속성을 가진 자연물로 안개비가 흩날려 내리는 순간의 이미지나 화창한 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반짝이는 햇살의 순간적 이미지가 있다. 이는 찬란한 순간의 환희와 금새 사라져버리는 아쉬움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전달한다.

1. 영원의 시간 속성을 가진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영원(永遠)

문태준

어릴 때에 죽은 새를 산에 묻어준 적이 있다
세월은 흘러 새의 무덤 위로 풀이 돋고 나무가 자랐다
그 자란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새가 울고 있다
망망(茫茫)¹⁵⁾하다
날개를 접어 고이 묻어주었던 그 새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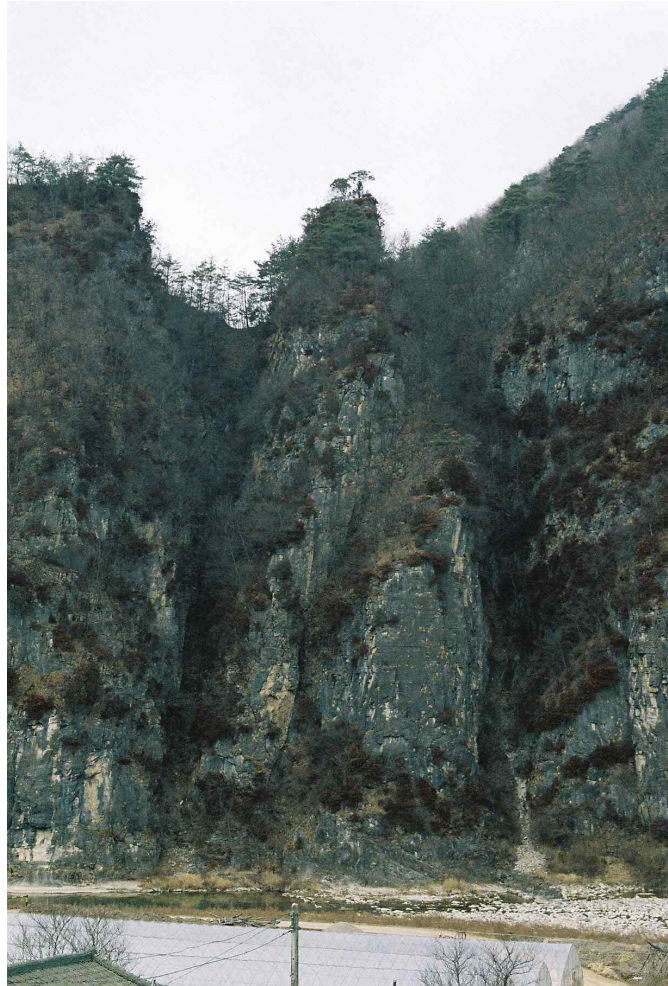
영원의 시간은 길고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지된 시간일 수도, 혹은 돌고 도는 순환의 시간일 수도 있다. 위의 시 <영원(永遠)>에서는 어릴 때 죽은 새가 마치 환생하여 풀이 되고,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후에 나뭇가지에 앉은 조그마한 새가 그 새일 것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영원의 시간처럼 생(生)과 사(死)를 반복하는 자연물의 순환을 새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시인이 표현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영원은 ‘망망하다.’

이러한 시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자연물로 깎인 절벽, 부드러워진 돌, 울창한 숲 등이 있다. 깎인 절벽은 오랜 시간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

15) 어렵꽂하고 아득하다, 네이버 국어사전, 「망망(茫茫)하다」, 2016. 09.15.

되고, 부드러워진 돌 또한 서로 부딪혀 마모되기까지 지나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울창한 숲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계절의 반복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작품 1. 깎인 절벽



[도판 7] 풍화작용으로 인해 깎인 절벽

바 위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영겁(永劫)¹⁶⁾의 시간은 쌓여 그 흔적을 남긴다. 숨 쉬고 존재하는 이 순간의 시간이 쌓여 하루, 이들이 지나고 일 년, 이 년, 십 년, 천 년의 시간이 된다. 이러한 시간은 반복되어 끝없는 영원의 시간이 된다. 영원의 시간 동안 존재하는 자연은 정지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깎인 절벽은 영겁의 세월을 견뎌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동시에 그 과정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도 먼, 손에 닿을 수 없는 넓고 먼, 어렴풋하고 아득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위의 시 <바위>에서 작가는 어렴풋하고 아득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바위를 희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위, 돌 등 영원의 시간 속성을 가진 자연물들은 위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꿈꾸어도 노래

16) 무시무종의 영원한 세월. 겁(劫)은 이 세상이 한번 이루어 졌다가 없어지는 긴 시간을 말하는 데 그 겁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불교대사전, 「영겁(永劫)」, 2016.09.15.

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으며, 비와 바람에 꺾이는 대로 침묵한다. 즉 시련과 고독, 인내심 등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 오랜 시간 제 살이 깎이고 떨어져나간 절벽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을 통해 완성된 자연물이다.



[작품 1] Memoir_crash, 240x230x240(mm), tombac, 2016

[작품 1]은 깎인 절벽을 모티브로 제작한 기물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원에 가까운 시간의 크기를 가진 자연물인 깎인 절벽은 그 소재 자체가 인내, 고독, 외로움, 시련과 같은 내적 강인함을 가진다. 판금 작업은 비교적 긴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이 같은 수행은 내적인 고행, 집념,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때론 고독하고 허무하기도 하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단시간에 얻을 수도 없다. 이는 금속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기나긴 작업시간은 자아성찰의 기회를 주고, 반복적인 기법의 수행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한다. 세상사의 고통을 경험한 허무와 고독의 감정,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동시에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물러 있는 강인함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기물에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깎인 절벽의 이미지는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준다. 망치 성형을 통해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마치 자연의 풍화작용처럼 바위의 원초적 형태를 다듬는 것과 같다. 기물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꺾여 들어가고 나온 면들의 네모 혹은 세모꼴이 모여 수직 수평의 선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선들이 모여 기물의 형태를 결정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계획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망치성형 과정에서 그 들어가고 나온 선들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야 전체적인 형태가 드러난다. 이러한 성형 과정을 통해 단단하고 견고한,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으며,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침묵하는 바위의 감정을 가진 선적 이미지가 기물에 나타나게 된다.

작품 2. 부드러워진 돌



[도판 8] 물살과 자갈 등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요선암의
돌개구멍¹⁷⁾

17)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에 자리한 요선암 돌개구멍은 2013년 4월 천연기념물 제 543호로 지정되었다. 돌개구멍은 일명 ‘포트홀(pot hole)’로 잘 알려져 있고, 구혈(甌穴)이라 부르기도 한다. 암반의 오목한 곳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와류 때문에 생긴다. 모래나 자갈이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면서 암반을 마모시켜 발달하는 지형이 바로 돌개구멍이다.
한국관광공사, 「돌개구멍(pot hole)」, 2016.12.06.

물의 혀

나석중

저 달덩이 같은 몽돌을 보면
물의 혀가 대단하다
물의 혀는 그 촉감 얼마나 보드러운지
돌은 돌끼리 부딪쳐 깨지고
숫아난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통증조차 느낄 수 없도록
가만 가만 핥아 주었을 것이다.
오히려 돌의 상처를 씻어내던 혀가
갈기갈기 해지고
닿고 닿았을 것이다.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물의 혀는 참는 게 미덕
잘도 참아주었으므로 물의 혀는
돌을 갉는 서생(鼠生)의 치열처럼 정연하고
닿으면서 또 길어냈을 것이다
바닷가에 와서 나 하나의 몽돌로
누워 물의 혀를 받아들인다

부드러워진 돌은 끊임없이 깎여 마모된다. 이 돌은 물살에 의해 깎이거나 다른 돌들과 서로 부딪혀 마모되고 깎여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다. 그 표면은 흐르는 물과 돌의 침식작용의 결과물이다. 긴 시간동안 침식작용이 지속되면서 동글동글해진 표면이 곧 세월의 증거인 셈이다. 나석중은 <물의 혀>에서 돌의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어준 것이 ‘물을 혀’라고 표현한다. ‘물의 혀’는 흐르는 긴 세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이처럼 표면이 부드러워진 몽돌은 무언가 부드럽게 표면을 연마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즉, 그 매개체는 영원의 시간이다. 해변이나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크기의 조그만 조약돌이나 강원도 영월의 요선암 돌개구멍의 물살이 만들어 낸 커다란 몽돌들의 형태는 부드럽지만 그 표면은 조밀하고 단단하다. 이 돌들이 얼마나 많은 물살을 만났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작품 2] Memoir_rounds, 145x150x150(mm), copper, 2012

[작품 2]는 서로 마모되어 ‘부드러워진 돌’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도판 7] 깎인 절벽이 형태적으로 수직, 수평의 선을 가지고 단단한 견고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같은 영원의 시간을 보낸 [도판 8] 돌개구멍은 형태적으로 여성적이다. 이처럼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돌은 부드러운 외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긴 세월에 의해 형성된 내부의 조밀함과 단단함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영원의 시간동안 부드러워진 돌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둥글둥글한 곡선의 형태이며 이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결코 연약하거나 부서질 것 같은 감성은 아니다. 이렇듯 영원의 시간적 속성을 거쳐 탄생한 이미지는 내면의 강인함을 품고 있다.

작품의 형태는 둥근 곡선과 곡면, 그리고 매끈한 표면이 주된 요소이다. 각각의 곡면은 비교적 일정한 곡률을 이루어 완만하게 만난다. 그 곡면과 곡면이 만나 생기는 선들의 각도 또한 완만하여 둥근 곡선을 이룬다. 이는 서로 마모되어 둥글어진 표면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면과 선의 성격이 완전히 표현되기 전까지 작품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점은 [작품 1] 깎인 절벽과 같지만, 형태가 전달하는 느낌은 [작품 1] 깎인 절벽과 대조적이다. 마감면의 전처리 또한 곡선의 곡률 그대로 마무리하였다.

작품 3. 울창한 숲



[도판 9] 겨울 숲

겨울산은 푸른 상처를 지니고 산다

정세기

슬픔이 끌어 산으로 간다
살 저미는 아픔에 겨워 산도
어디론가 떠날 채비 중이다

바람에 갈무리한
견고한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겨리에서 쫓겨난 햇살과 별빛을 품고
맑은 물소리로 나를 씻어준다

산도 나도 상처는 깊어
서로의 상처에 기대면
내 가슴에도 새겨지는 나이트
아픔이 내게로 가는 길을 연다

나무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다
누구도 넘보지 않고 육탈한 몸
슬픔을 끌고 따뜻한 겨울잠에 든다
상처만이 푸르게 깨어 있다

영원의 속성을 가진 자연 이미지의 또 다른 예로 울창한 숲이 있다. 숲은 계절에 따라 다른 감성과 외양으로 비추어진다. 봄의 숲은 싱그럽고 초록이 피어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다. 여름의 초록은 상록이 푸르고 만개한 젊은 날의 청춘과도 같으며, 붉게 물든 가을 산은 해 저무는 저녁노을과도 같이 중년의 중후함이 있다. 특히나 ‘겨울 숲’은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푸르던 상록이 소멸하고 황량해진 적막감 위로 따뜻하고 포근한 눈이 덮인다. 생명의 에너지를 비축해두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겨울 숲 또한 포근한 대지 안에서 새로 맞이할 봄을 준비한다. 따라서 <겨울산은 푸른 상처를 지나고 산다>에서 잎이 떨어지고, 앙상해진 나무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금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금 ‘탄생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푸른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겨울산은 하얗고 고요하고 쓸쓸하며 외롭다. 겨울에서 봄으로 돌고 도는 생명의 주기는 마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의 시간과도 그 속성이 닿아있다.



[작품 3] Memoir_rounds_2, 430x300x60(mm), copper, 2013

[작품 3]은 울창한 숲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울창한 숲은 생(生)과 사(死)의 주기를 가진다. 울창했던 나무는 겨울이 되어 발가벗고, 나무는 봄을 기다려 푸르른 수목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긴 시간동안 반복되고 그 반복을 거치며 새싹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울창한 숲을 이룬다. 이러한 숲의 이미지는 땅에 닿듯이 낮아야 하고 생명력을 발산해야 하며, 동시에 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물의 형태를 기존의 깊이가 있는 기물이 아닌 넓은 접시형태의 기물로 제작하였다. 기물의 표면에는 숲의 나뭇가지, 또는 나뭇잎의 이미지를 유선형 곡선을 통해 표현했다. 전처리는 기물의 선과 면이 만드는 곡률에 따라 잘라내어 '푸른 생명력'을 발산하는 이미지가 강조되도록 하였다.

2.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흐르는 시간의 속성은 관성이다. 무언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그 행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힘은,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유도하고 그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간 속성의 예로 [도판 10] 모래의 결과 [도판 11] 흐르는 물줄기를 들 수 있다. 모래사장의 모래는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끊임없이 결이 형성되고, 이것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이 반복된다. 흐르는 물줄기 또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르거나, 원심력으로 돌고 도는 반복적 성향을 가진다. 바다의 파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작품 4. 모래사장의 모래



[도판 10] 파도나 바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래의 결

모래사장에 남는 물결무늬처럼

허만하

어둠의 깊이를 헤집는 유백색 실뿌리와
푸른 하늘을 더듬는 실가지 틈새에
수직으로 서는 한 그루 나무

벌써 없는 시간과 아직 없는 시간 그 사이
눈 한번 깜박임보다 짧은 침묵의 틈새에서
미래와 과거가 서로를 부르는 바람 소리

바람의 중심에 서서 꺼질 듯 하늘거리는
나는 피와 살의 촛불

밤하늘 별빛 바라보는 맑은 눈에 고이는
한 방울 눈물의 깊이에서 바다가 태어나듯
연듯빛 잎사귀 한 잎의 눈부신 떨림에서
검푸른 원시의 숲이 태어난다.

아득한 나라 생소한 지명 언저리를 걷는
싱싱한 바람의 날개
아직 존재하지 않은 풍경이 세상에 있다.

풍경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모래사장에 남는 물결무늬처럼
언제나 안에 있다.

마그마가 얼어붙는 영하의 온도가 화성에 있듯
나를 거절하는 낯선 풍경이 세상 어디엔가 있다.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가진 자연의 이미지 중 하나로 [도판10] 모래사장의 모래의 결의 이미지가 있다. 모래사장의 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유지되는 현상이다. 모래의 결은 마치 물결처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변화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적 이미지는 위의 시<모래사장에 남는 물결무늬처럼>에서 ‘미래와 과거가 서로를 부르는 바람 소리’와도 같은 각각 다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래사장에 남는 물결무늬는 ‘벌써 없는 시간과 아직 없는 시간 그 사이, 눈 한번 깜빡임보다 짧은 침묵의 틈새에서, 미래와 과거가 서로를 부르는 바람소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검푸른 원시의 숲’이며 ‘아직 존재하지 않은 풍경’과도 같은 신비로운 것이다.



[작품 4] Memoir_whoosh, 450x450x70(mm), copper, tumbac, 2016

[작품 4]는 모래사장의 모래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다. 모래라는 소재의 특성상 바닥에 존재하고 모래 결의 고저는 앞의 작품들만큼 강하지 않다. 영원의 시간성을 가진 자연 이미지와는 다르게 잔잔한 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의 시작과 끝이 모호하다. 그러한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낮고 가운데가 볼록한 원형을 구상하였다. 또한 모래의 결은 곡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자유곡선의 반복이기 때문에 잔잔한 느낌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선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 단점을 재료로 보완했다. 적동으로 주제부인 모래의 결을 볼록하게 성형하고, 단동으로 주변을 평평하고 낮게 성형한 후 두 재료를 용접하였다.

작품 5. 흐르는 물줄기



[도판 11] 흐르는 물줄기

물빛

마종기

내가 죽어서 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쓸쓸해집니다

산골짜기 도랑물에 섞여 흘러내릴 때
그 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냇물에 섞인 나는 물이 되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겠지요

흐르면서 또 흐르면서,
생전에 지은 죄를 조금씩 씻어내고,
생전에 맺혀있던 여한도 씻어내고
외로웠던 저녁, 슬펐던 양금들을
한 개씩 씻어내다보면,
결국에는 욕심 다 벗은 깨끗한 물이 될까요

정말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물 속에
당신을 비춰 보여 주세요
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나는 허황스러운 몸짓을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당신과 오래 같이 살고 싶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내 온몸과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송두리째 가진다는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부디 당신은 그 물을 떠서 손도 씻고 목도 축이세요
당신의 피곤했던 한 세월의 목마름도
조금은 가셔지겠지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어서 물이 된 것이
전혀 쓸쓸한 일이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도판 11]의 찰랑거리며 흐르는 물줄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흐른다. 돌들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굽이쳐 흐르며, 물가의 유속에 따라 주변의 풀들이나 경사를 만나 빠르게 흐르기도, 느리게 흐르기도 한다. 이 물결의 고저와 방향을 보고 있노라면 고요함 속의 평온함, 즐거움, 때로는 쓸쓸함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마치 흐르는 시간을 관찰하며 내 자신을 생각하고 고요한 명상을 하는 듯한 묘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위의 시 <물빛>은 이러한 흐르는 물을 보며 느끼는 감상적 생각들을 나타낸 것으로, 쓸쓸함의 감정을 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생의 시간이 물처럼 흐르듯, 우리 인생의 일상적 반복이 흘러가다보면 결국은 ‘욕심 다 벗은 깨끗한 물’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다. 계속해서 흐르는 물은 ‘피곤했던 한 세월의 목마름을 가시게 해 주는, 허황된 몸짓을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당신의 몸 안에서 함께 흐르는 존재다.



[작품 5] Memoir_drips, 110x110x235(mm), brass, 2015

[작품 5]는 흐르는 물줄기를 모티브로 하였다. 흐르는 물줄기가 보여주는 선적 이미지는 여러 갈래의 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이미지이다. 일정한 면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선으로 시각화된다. 그 선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반복되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형태를 포착하게 된다. 이 과정은 선, 면, 형태 순으로 관찰된다. 전체적인 형태의 측면에서는 굽이쳐 흐르거나 유속의 변화를 가진 흐르는 물의 선적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물을 사각형으로 제작하였다. 사각형의 기물은 정면에서 볼 때에 원통형의 기물보다 왜곡이 적어 흐르는 물의 선적 이미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규칙적인 판의 고저(高低)의 변화는 흐르는 물의 리듬감을 부여해준다.

3. 찰나의 시간적 속성을 가진 자연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찰나의 시간은 인간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찰나의 시간은 순간적인 이미지만을 머릿속에 남기며 사라진다. 그 순간적인 이미지는 즐거움일수도 아픔일수도 있다. 주관적인 기억에 따른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현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찰나의 이미지는 아쉬움, 혹은 추억을 동반한다. 어렴풋하게 기억되고,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드는 감정이 뇌리에 남는다.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는 자연 이미지의 예로 안개비가 흩날리는 순간과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골라 작품에 반영하였다.

작품 6. 흩날리는 안개비



[도판 12] 흩날리는 안개비

비오는 날에 당신의 그리움은 안녕하신가요?

정세일

사랑하는 나의 당신이여
비오는 날에 당신의 그리움은 안녕하신가요?

어느 날처럼
무지개의 가게에 들러
음반도 하나 사고
당신의 그리움에
보랏빛 비옷을 입고 나면
흥흥 거리는 콧노래 하나
안개비의 노래들
작은 트랙을 돌아서
그 애태움만 세우고
운동장에 모여 있는
풀잎 아이들
나무와 푸름과
초록빛 교복을 입히고
여름 속으로 걸어가서
당신의 마음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이슬비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비오는 날에 그리움의 물방울이에요

[도판 12] 훔날리는 안개비는 찰나적이다. 안개비는 짧은 사선이 훔날리는 선적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짧은 사선의 빗줄기는 마치 경쾌한 환희의 순간과도 같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은 곧 지나가고 아쉬움의 감정이 남는다. 위의 시 <비오는 날에 당신의 그리움은 안녕하신가요?>는 훔날리는 안개비 속 순간의 환희와 곧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흥흥 거리는 콧노래 하나, 안개비의 노래’ 라고 말하며 안개비가 내리는 밝고 경쾌한 환희의 순

간을 표현한 후, ‘그 애태움, 비오는 날에 그리움의 물방울’이라는 시구로 찰나의 순간이 곧 지나가 버린 아쉬움을 그리고 있다.



[작품 6] Memoir_drops, 130x130x230(mm), fine silver, 2016

[작품 6]은 흘날리는 안개비를 모티브로 경쾌하고 발랄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움의 감정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은(銀)을 재료로 사용했는데, 은이 가지는 차갑고 경쾌한 느낌이 찰나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개비가 흘날리는 찰나의 선적 이미지는 짧은 사선의 불규칙한 배열로 표현하

였다. 비교적 긴 선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짧은 선은 반대 방향으로 배치하여 일정한 규칙과 불규칙성이 공존하도록 했다. 기물의 전 부분은 환희의 감정을 담은 듯 선의 고저를 따라 잘라내어 마치 물이 튀거나 위로 솟는 형태처럼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작품 7. 반짝이는 햇살



[도판 13] 반짝이는 햇살

아침 햇살

정연복

잠에서 깨어나면
선물같이

눈앞에
와 있는 새 아침.

어제까지의 일은
훌훌 털어 버리고

가벼운 맘
경쾌한 발걸음으로

날마다 새 인생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날 새 아침의
밝은 햇살이

희망과 격려의 말
다정히 속삭여 주네.

[도관 13] 울창한 숲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햇살의 이미지 또한 아주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가는 자연 이미지이다. 이는 잠시잠깐 선물 받은 ‘순간의 환희’ 같다. 위 시 <아침 햇살>에서 ‘햇살’은 ‘잠에서 깨어나면 선물같이’ 찾아오는 존재이다. ‘가벼운 맘 경쾌한 발걸음으로, 날마다 새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밤의 어둠을 깨우는 빛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즉, 햇살은 ‘희망과 격려의 말 다정히 속삭여 주는

존재'이며 찰나의 순간에 밝고 경쾌하게 빛난다. 찰나의 순간이 드러내는 감상적인 느낌이 '환희, 경쾌함'과 같은 것이기에, 새벽의 정적과도 같은 울창한 숲에서 아침을 알리는 밝은 햇살은 그러한 찰나의 순간과 맥락이 잘 들어 맞는다. 햇살은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듯, '반짝인다'라는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은 지속되기 힘들고, 금방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작품 7] Memoir_glimmers, 180*210*220(mm), silver 998, 2016

[작품 7]은 반짝거리는 햇살의 순간을 표현한 연구 작품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작품 6] 훔날리는 안개비와는 대조적으로 넓은 보울(bowl) 형태로 제작하여 재료가 가진 차가운 속성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햇살의 반짝거림은 ‘광택이 있는 넓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순간순간 변화하며 스며들어오는 빛의 양과 위치의 변화가 관찰자의 시각에서는 반짝거림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강하게 내려오는 일그러짐 없는 굽은 선과 같은 사선방향과 얇은 선의 조합으로 햇살을 표현했다. 또한 선의 윗면을 반짝이게 광택처리하여 빛의 즐기임을 암시하였다.

IV. 결론

판금작업은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금속공예기법이고, 연구자의 작업은 모두 판금작업에 기대고 있다. 그러한 판금 작업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타출(打出)기법을 위해 열풀림을 하고 감탕의 채우고 다시 비우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밀물과 썰물의 파도가 만든 해안의 절벽, 여러 계절을 반복해 성장하는 숲을 떠올렸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은 한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을 초월해있다. 연구자는 작품제작 과정 속에 내재한 반복성과 시간성을 기술적 차원이 아닌 작품의 중심 주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시간의 기본적 속성을 드러낸다. 시간은 단선적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는다. 즉, 시간은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쌓인다. 그 증거가 자연물에 남은 선의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은 자연물에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적 소재들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흐르고 있는 시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자는 자연의 풍경이 변화하며 만들어내는 선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작품

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자연의 선적 이미지를 영원의 시간, 찰나의 시간, 흐르는 시간이라는 세 분류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성이 주는 감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시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으로 분류해보았다. 첫째, 영원성의 시간이다. 영원한 시간을 담은 자연물은 시간 속 사건의 기록을 연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존재를 소멸로 이끄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과하여 우리 앞에 존재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인내심, 고독, 외로움, 시련과 같은 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둘째, 흐르는 시간이다. 이것은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방향과 지속성을, 즉 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반복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작품 제작 시 금속이 열풀림과 굳어짐의 반복, 그러면서 최종 형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연구 작품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찰나의 시간이다. 이는 눈으로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순간의 감정으로만 기억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시간은 추상적이며 시간의 실체는 오직 시간 속 사건과 사물의 이미지가 우리 의식에서 심상을 만들 때 인식하고 탐구될 수 있다. 모든 시가 서사적이지 않듯, 어떤 시는 연구자에게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중심 개념들을 현실의 경험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시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적 심상을 활용하였다.

시간의 다양한 측면들은 보여주기 위한 영원의 시간, 흐르는 시간, 찰나의 시간에 해당하는 선의 표현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영원이라는 긴 시간적 속성에 해당하는 깎인 절벽은 주상절리의 강인한 선적이미지를, 부드러워진 돌은 오랜 세월에 의해 마모된 조약돌의 둥근 곡선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긴 시간적 속성에 해당하는 자연의 기본적 요소인 돌, 바위와 같은 것들은 단단하다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선의 이미지’는 뒤틀림이나 일그러짐이 없는 선이다.

둘째, 흐르는 시간적 속성에 해당하는 모래사장의 곁은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일상의 행위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자칫 권태로울 수 있는 반복적 현상은 연구자에게 고요함, 평온함과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소재인 굵이치는 물줄기는 계속 흐르고, 잔잔하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일상과 같지만, 맑고 경쾌하게 흐르는 소리로 깨끗이 정화시켜 준다. 흐르는 시간적 속성의 작품들은, 형태적으로 반복되는 자유곡선의 선들이 패턴이 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의 소재들이 평온함, 즐거움이면서도 역동적 에너지로 드러나는 양가적 속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찰나적 속성은 훑날리는 안개비와 반짝이는 햇살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훑날리는 안개비의 순간은 경쾌하고 발랄하다. 따라서 순백의 새하얀 은기 위에 경쾌한 빗줄기를 표현함으로써, 순간의 환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반짝이는 햇살이 보여주는 순간적인 빛은 표면의 광택 대비를 통해 드러냈다. 찰나의 순간은 물리적으로 가늠해보기조차 힘든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감성적 기억으로 남게 되는 하나의 시간이다. 한마디 단어로 형용하기 힘들지만, 찰나의 시간의 ‘선적 이미지’는 밝고 경쾌한 순수함과도 같은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출발점은 ‘판금작업이 요구하는 긴 시간’이었다. 기물의 형태와 선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망치와 모루를 만들어야했고, 선적이미지를 기물에 새기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점이 작품 연구의 아쉬웠던 부분이다. 시간성의 선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긴 작업 시간과 도구를 만드는 시간은 연구자의 판금기법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선적 이미지를 기물에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사라 베이크 웰, 『어떻게 살 것인가』, 김유신 역, 책 읽는 수요일, 2012.
- 이민호, 『20-세기 끝에 서서』, 느티나무, 1999.
- 미셸 루트번스타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7.
- 토마스 데 파도바,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박규호 역, 은행나무, 2016.
- 이강산,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실천문학사, 1996.
- 정세기, 『겨울산은 푸른 상처를 지니고 산다』, 실천문학사, 2002.
- Giovanni Carandente, 『Eduardo Chillida : open-air sculptures』, translated by Richard Rees ,D.A.P./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3
- 에티엔 클랭 Klein, Etienne, 『시간은 존재하는가?』 이수지 역, 황금가지, 2006.
- 이성복, 『팅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문학과지성사, 1995 (2014 48쇄)
- 윤금초,이우걸[공]엮음, 『다섯빛깔의 언어풍경 : 정선현대시조5인사화집』, 동학사, 1995.
- 김기림, 『길 : 시·수필·시론』, 깊은샘, 1992.
- 강우식, 『詩가 있는 地上에서』, 강우식, 宇石, 1990.
- Foundation Henri Cartier-Bresson,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그는 누구인가』, 정진국 역, 까치, 2003.
- 황치옥, 『과학과 종교의 시간과 공간』, 생각의힘, 2014.

논문

- 이보연, 「시간의 정감적 인식에 대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동양화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은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화의 정보 시각화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참고 사이트

- 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국립국어원 : <http://www.korean.go.kr> /
- LUHRING AUGUSTINE :
<http://www.luhringaugustine.com/artists/tom-friedman/bio>
- 지식채널 e 동영상 :
http://blog.naver.com/photopia_lab/50636246, 2016.08.13.

Abstract

A Study on Vessel Works Having Time-related Line Images

Kim Sanghoon

Craft maj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tive of this thesis is that a sheet metal working is a relatively time-consuming task. The author divided time into groups of three as eternity, passing-time, and moment in the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perspectives. Therefore, this research uses nature images like an old rock or wood as the motive of the works showing the concepts of the three-classified time.

These concepts attempt to combine them with vessel works using a sheet metal working process because the author thinks that nature is a theme - effectively showing the direction of time - related to eternity, moment, immutability, and a change.

To explain the correlation of time and nature, first of all, it needs to be surveyed about the concepts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time. Next, the author intends to present the correlation between natural objects and the emotions of the works by using their poetic imagery because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many line images in nature are likely to be conveyed through literary works.

As a close look at the emotional aspects of the nature objects according to the three categorizations of time, first, there are nature objects showing eternity having nearly endless time such as a cliff formed through prolonged weathering, soft stones by abrasion, and a dense forest. These objects are epic and become a medium making an observer remind a sense of stillness like patience, isolation, loneliness, hardship, and awe. Second, there are nature objects showing passing-time such as the layer on the sand by wind and the constantly waving surface of the water. These nature objects have a sense of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like a type of inertia, presenting not only ordinary emotions but also the force of keeping an eye on them. Lastly, there are nature objects showing moment such as the images of the misty rain and a glimmer of sunlight among leaves. These images have features that may be vanished as soon as a viewer sees them. Thus, the author attempts to convey the emotional aspects by showing each nature line images on vessels.

**keywords : time, eternity, moment, passing-time, nature object,
line images**

Student Number : 2012-23404